미처 발견치 못한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

셸리와 브론테의 '다시 혹은 새로 읽기'

정정호
중앙대교수 · 영문학

이번 여름휴가에는 몇권의 책을 '다시/새로' 읽고 싶다. 신간을 읽기보다 이미 여러번 읽었던 책을 꺼내 '다시/새로' 읽고 싶다. 나에게 있어서 '다시/새로' 읽는다 함은 평상적인 독서방식에서—다른 말로 하면 기존의 읽기방식에서—벗어난다는 뜻이다. 이는 어찌보면 '저항적 독서'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떤 책에 대해 오랫동안 부여해온 가치와 의미체계에 거슬러 읽는다는 뜻이다. 여지껏의 책읽기에서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독자'인 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발휘하며 즐기겠다는 말도 되고 '텍스트' 자체를 종래와는 다르게 보자는 측면도 있다. 우리는 책속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부분은 '다시' 들추어내고 텍스트 속의 비어 있는 부분과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꼬여 있는 부분을 풀어내야 한다. 또는 작가 또는 시인이(무·의식적으로) 드러내거나 숨기고 있는 부분은 찾아내어 그것을 '다시/새로' 생각해 봄으로써 지금과는 다른 의미를 창출하거나 해체시킬 수도 있다.

여름에, 특히 휴가 때나 여행중에 읽는 책읽기는 어디까지나 일상적 궤도에서 벗어난 쾌락적·몽상적이어야 한다. 이는 책읽는 주체인 내가 책이라는 텍스트와의 일종의 情事(?)를 벌여야 한다는 말이다. 교과서적이고 규범적이고 체계적인 책읽기를 벗어나 책과의 관능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될 것인가? 책을 하나의 객관적 대상으로만—일정한 의미와 확실한 의도가 들어있는—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몸체(또는 텍스트성) —따라서 독서행위라는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자체의 변신이 가능한—로 바라보는 것이다. 텍스트 속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담겨진(또는 숨겨진) 의미찾기에만 매달리는 작업은 여름적(?) 책읽기는 아닌 듯싶다. 의미만을 찾아내는 책읽기는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책읽기이다. 책이라는 몸체(저자도 개입되는)와 나라는 몸체 사이에서의 가장 창조적인 관계는 현상학적인 관계일 것이다. 한쪽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양쪽의 상호적인 관계—서로에게 의미를 주고 변형시키는—를 이루어내는 글읽기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책읽기가 아닐까? 푸르름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변형의 계절인 여름에 책읽기는 이러한 의미에서 책과 함께 떠나는 내면으로의, 또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여행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내가 '다시/새로' 읽고 싶은 책은 나의 주관심 분야인 영문학에서 흔한 책 두 권이다. 하나는 19세기초 영국 낭만주의 시인으로 이탈리아에서 요절한 P.B. 셸리의 시선집이다. 또다른 하나는 여름에 읽기에는 좀 부피가 큰 같은 19세기 영국소설가인 샤로트 브론테의 「제인 에어」이다. 내가 이번 여름이라는 여행에 이 책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인연에서 연유한다.

내가 셸리와 각별한 사이가 된 것은 10년 전 영국에 체재하고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나는 가족과 함께 부활절 휴가를 맞아 유럽을 원형으로 일주하는 여행을 하였다. 그때 우리는 40일간에 걸치는 일종의 문학편력여행을 하였다. 우리가 들른 곳이 나중에 알고 보니 160여년 전 셸리가 편력한 곳과 상당히 일치하여 묘한 느낌을 받았다. 높은 철학적·정치적·예술적 이상을 지니고 스스로 추방자가 되어 치열하게 시를 쓰다 요절한 천재시인 셸리가 나의 무의식을 소유한 젊은날의 영웅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셸리의 첫째부인 헤리엇이 투신자살한 런던의 하이드공원 내의 서펀타인 호를 바라보면서 상념에 잠기는 것으로 나의 순례는 시작되었다. 셸리가 당시 급진사상가였던 고드윈과 페미니즘의 선구자인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사이의 딸인 둘째부인 메리와 대륙으로 도피여행을 떠날 때 배를 탄 도버항 선창가에서 셸리부부의 편린을 찾을까 서성이기도 했다. 파리를 거쳐 셸리가 바이런과 함께 휴가도 즐기고 작품구상도 한 스위스의 제네바 호수에서 그들의 이상과 정열이 응결되어 호수속에 남아 있지나 않을까 수심을 바라보며 가슴 설레이기도 했다.

나는 셸리 시선집을 가슴에 품은 채 셸리가 한때 오래 머물렀던 피사를 지나 로마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나는 로마문명과 문화, 이탈리아의 지중해성 기후와 영혼에 매료되어 죽을 때까지 이탈리아를 거처로 했던 셸리의 심중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의 시와 사상을 더 잘 알듯 하여 가슴이 뜨거웠다. 로마시의 관광명소의 하나인 '스페인 계단' 밑에 위치한 작고 귀여운 집인 키츠와 셸리 기념관 앞에 주저앉아 그들의 모습을 마냥 기다려 보기도 하였다. 또한 로마에 있는 그의 묘지를 찾아가 이상향 속에서 영원히 살고 있을 그의 명복을 빌기도 하였다.

유럽의 다른 지역을 거쳐 다시 런던으로 되돌아와 템즈 강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달려가 1954년 키츠와 셸리 기념사업회가 셰익스피어 기념비 위에 세운 '시인구역'의 추모패 앞에 그의 시선집에 손을 얹고 경배함으로써 셸리기행을 끝맺었다.

내가 셸리를 '다시/새로' 읽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셸리는 올여름에 소위 영미형식주의 신비평 시대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철없는 이상주의 시인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신비평가들, 인습적 도덕가들, 반동적 보수주의자들의 셸리 시라는 장대한 건축물을 무표정하게 '폐허'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쏜 빗나간 화살이다. 셸리의 시를 '다시/새로' 읽음으로써 오해받고 있는 한 시인을 '다시/새로' 찾아내고 싶다. 셸리가 파악하는 시의 본질은 사랑이다. 여기서 사랑은 시를 통한 '공감적인 상상력'의 유발로 인하여 타자(the other)에 대한 감정전이를 통한 이해와 사랑의 성취를 꿈꾼다. 그의 공감적 상상력을 통해 셸리와 그의 시와 내가 함께 변모하리라. 이탈리아 스페차 만에서 바이런이 선물로 사준 배를 타고 여행하다 폭풍우로 익사한 셸리는 (산호와 진주를 목에 걸고?) 물속에서 재생하여 부활한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휴가는 셸리의 시선집을 '다시/새로' 읽으려 기필코 바닷가로 가야 하지 않을까?

또다른 개인적인 사건 하나. 그것은 다름아닌 브론테 자매들과의 인연(?)이다. 영국에 1년 체재하는 동안 중부인 요크셔 지방의 리즈라는 시에 리즈대학교 근처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동차로 불과 40분 거리에 바로 브론테 자매의 생가인 하워스가 있지 않은가? 그후 그곳을 5번 이상 찾아가게 되었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찾아와 간 적도 있고 음산하고 쓸쓸한 기분이 들었던 어느날 혼자 그곳에 찾아가 샤로트 브론테의 「제인 에어」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의 흔적을 찾으면서 서성거렸다. 특히 10세난 어린 소녀 제인 에어에게 나는 영문과 학도로서 강력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고아나 다름없는 어린 소녀 제인 에어가 가부장제의 열악한 상황에서 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으로 성장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결국에는 빅토리아 시대의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구원하는—과정이 얼마나 영웅적이며 감동적인가? 이런 연유로 미국의 저명한 여류시인 아드리언 리치는 어린 시절부터 「제인 에어」를 자주 '다시/새로' 읽음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양분과 특별한 힘, 생존가치를 찾아낸다고까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번 여름에 왜 「제인 에어」를 '다시/새로' 읽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표면에 나타난 작가 브론테와 그 소설에 숨겨진 또다른 허위 이데올로기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의 관심사는 주인공 제인 에어를 의심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그 소설에 나오는 남자주인공 로체스터가 가두어 놓은 부인인 미친 여자 버사 메이슨을 '다시/새로' 찾아내기 위해서이다. 식민지 원주민 출신인 버사가 미치게 된 것은 가부장제는 물론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의 정신적·성적·물질적 착취의 화신인 백인 제국주의자 로체스터의 억압과 착취에 의한 것이다. 버사는 이 소설에서 끔찍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타자로 그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인의 태도는 지독히 수상하다. 제인은 이런 여인을 죽게 내버려두고 끝내 로체스터와 결혼하게 된다. 이것은 분명히 백인작가나 주인공의 무서운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여름에 이 기다란 소설을 꼼꼼히 '다시/새로' 읽음으로써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소설의 하나로도 끊임없이 읽히는 이 소설을 해체해 보아야겠다. 「제인 에어」와의 새로운 정사를 위해선 셸리 때와는 달리 아무래도 시원한 골바람이 부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으련가?